8년만에 찾아온 중기중앙회장 선거



김 승 호의 시 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8년만에 회장 선거를 치른다.

이런 와중에 벌써부터 금품선거 냄새가 난다.

중기중앙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렇다.

지난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여기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연합회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부부동반이었다.

그런데 A이사장의 아내에게 중기중앙회 지역회장 중 한명인 B씨가 돈봉투를 건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A이사장은 이를 공론화했다. B지역회장은 차기 중기중앙회장에 출마할 예정인 C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2월2일 제28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과열을 우려해 출마 예정자들에게 리더스포럼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C씨를 포함해 언론에 오르내린 5명은 행사에 불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사회에서 유력 후보자들과 개별 인터뷰해 포럼에 안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양해가 돼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과열을 우려해 돌다리도 두드리던 차에 지역회장의 돈봉투 문제가 리더스포럼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한 단톡방에선 해당 지역회장을 맹렬하게 성토하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최근엔 또다른 지역회장 D씨가 돈봉투 당사자인 B지역회장을 경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엔 현재 13명의 지역회장이 있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물증이 없어 관망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기중앙회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탁 여부를 결정해 중기중앙회에 이달 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5년 제25대, 2019년 제26대 회장 선거를 맡긴 바 있다.

위탁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소위 '중소기업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돈봉투 이슈가 불거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두 차례 연임을 통해 총 16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끈 김기문 현 회장과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의 '공정·투명 선거'를 위한 책임감이 어느때보다 무거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친김(기문), 반김 구도여서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는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 운동 금지, 금품 등 이익 제공 금지,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중기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불법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모처럼 열리는 이번 선거가 돈선거가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것이 업계 맏형이 할 일이자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에 서는 일과 다르지 않다.

/bada@metroseoul.co.kr

21세기 K-제약바이오의 '아메리칸 드림'과 '참 독립'



기자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 '100일의 거짓말' 속 여주인공의 꿈은 '미국행'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 새 세상을 꿈꾸던 그 시절 아메리칸 드림은, 21세기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명제는 아직도 불변의 진리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혁신 신약에 최고의 가치를 매겨주는 미국은 모든 기업이 선망하는 꿈의 시장이다.

거대한 미국 시장의 빗장은 여전히 높은데 문제는 후발 주자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자력으로 글로벌 문턱을 넘을 체력이 있는가다. 미국바이오협회(BIO)는 '바이오어드밴스' 보고서를 통해 백악관 전담 조직 신설과 자국 내 제조·인재 유치를 촉구하며 보호무역 장벽 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중국 우시앱텍을 중국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해 미국의 중국 견제가 K바이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던 기대는 흔들린다.

그렇다면 중국 진출은 어떠한가. 중국 토종 기업의 추격과 중국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국가집중구매) 정책으로 의약품 영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 공략, 현지 파트너사 로열티 수취 전략 등으로 중국에서 알짜 수익을 내는 국내 기업들조차 결국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현지 안착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정받는다.

안팎의 파고 속에 투자 한파로 자금줄까지 말라버린 국내 기업들은 벼랑 끝 선택을 하기도 한다. 거액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며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후기 임상을 감당할 돈이 없어 초기 단계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을 넘기는 모습은 마치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남의 집에 '입양' 보내는 듯한 씁쓸함도 남긴다.

더 큰 위기는 기술이 아닌 기업 자체가 해외 자본에 팔릴 위험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 생물보안법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우회 통로'로 삼아 지분 매수나 합작법인을 노린다. 자국 생태계를 위해 한국 기술력과 인력을 흡수하기도 한다.

우리 정부에게도 실질적 자금 수혈, 기술 보호 장치 등이 요구된다. 드라마 여주인공이 '미국행'이라는 표면적 목표를 통해 '독립'을 열망하게 되듯 K제약·바이오에도 온전한 주권이 필요하다.

/mlee236@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 (음 10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72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4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소 **4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다가옵니다. **73년생** 꿈 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5년생** 삶에 의지가 솟구칩니다.

호랑이 **50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62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86년생**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소신 있는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63년생** 인복이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유행성 독감을 주의하세요.

용 **52년생** 바람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64년생**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88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뱀 **53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65년생**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길합니다. **77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89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합니다.

말 **54년생**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66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습니다. **78년생**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90년생** 좀 더 적극적인 귀하의 의견 피력으로 중심을 잡을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 **55년생** 당신의 운은 계속 유지 될 것입니다. **67년생**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79년생**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91년생**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숭이 **56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 부치면 성공할 운입니다. **68년생** 좋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80년생**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92년생** 능력 밖에의 일을 귀하는 추진중입니다.

닭 **57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9년생** 큰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81년생**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9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개 **58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70년생** 매사 일 처리에 조심하세요. **82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94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세요.

돼지 **59년생** 현재 상태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길합니다. **71년생** 재물을 흘리는 운 입니다. **83년생** 시험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남쪽에 귀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부자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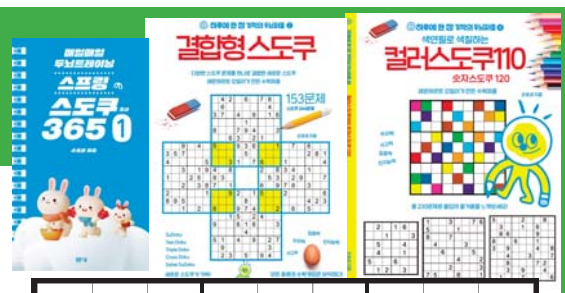
'부'(富)란 무엇일까? 한자 부(富) 글자를 파쇄해 보면 집을 나타내는 ?(집 면) 아래에 재물이 가득함, 복(?)을 의미하는 회의자이자 형성자이다. 밭 전(田)자는 곡식을 심어 키우는 터전인 땅으로서 재산의 풍요로움을 함축하고 있다. 땅 부자가 곧 부자의 상징이었다. 영어로는 'Wealth'로서 서양적 의미로도 가치 있는 물질적 소유물, 또는 자원의 풍요로움을 뜻하며, 여기에 더하여 인간의 노동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금은보화는 물론 사람을 사서 부리고 하는 힘이 대가로서 주는 재화이니 서양적 부의 해석이 포괄적으로 부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부를 많이 지닌 사람을 우리는 통상 부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Forbes)에서는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목록에 게재되는 개인의 순 자산은 문서로 만들어진 자산과 부채의 회계에 따라 계산되며 미국 달러에 의해 표기된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으로써 빚을 제외한 자산이다.

세계 부자 순위에는 그 나라에서 권력과 지배적인 위치에 의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독재자와 왕실 등은 제외되고 있다. 부자를 통상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로 부르고는 있지만 경제 단위가 엄청난 단위로 커지는 요즘은 '조만 장자'쯤은 돼야 세계적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때 "생각이 부를 낳는다!"라며 부자전도사격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본질에서 부를 가져오는 잠재의식의 계발을 통해 부를 성취하는 과정과 원리를 짚는다. 재성이 약한 사람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 사주 틀에서 모든 공식이 같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는 근면함에서 나온다."는 명심보감의 대부유천(大富由天) 소부유근(少富由勤)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9	1		6	2
3	9				6		5	
					5			
2	7	1						
8								1
						3	2	4
			9					
	4		5				9	6
1	6		4	8				5

				5				2
	9	1						
2		5	6		8			
		3	4		1		6	
6		4		8		1		9
	5		9		3	4		
			1		7	8		3
						2	7	
7				3				

할인도서

5	3	2	7	8	4	9	6	1
6	9	8	2	1	5	6	4	7
7	1	4	3	6	9	3	2	5
4	2	3	8	7	1	3	5	9
1	7	6	9	4	5	2	8	3
9	4	5	6	3	2	8	1	7
3	8	7	1	9	6	4	5	2
2	6	9	4	5	3	7	3	6

6	4	9	2	3	5	8	1	7
1	7	2	6	4	8	9	3	5
3	5	8	7	9	1	2	6	4
8	2	4	3	6	9	7	5	1
9	3	1	5	8	7	4	2	6
5	6	7	1	2	4	3	8	9
4	9	6	8	5	3	1	7	2
2	8	3	9	7	6	5	4	1
7	1	5	4	1	2	6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